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에 경희의료원 간호본부(본부장 유재선)가 참여했다. 선·후배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간호사의 길을 걸 것을 다짐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에 성민병원 간호본부(본부장 장수영)가 참여했다. 안병문 성민병원장이 간호사들을 지지하며 함께 배지를 달고 자리했다.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 시작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를 혁신하고,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캐치프레임즈가 새겨진 배지를 유니폼에 달았으며, '행복한 간호사, 국민건강권의 첫걸음입니다'를 주제로 한 흥보 포스터가 게시됐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3월 26일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호사들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즉시 행동해 나가겠다는 결의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캠페인 배지 및 포스터를 제작해 각 의료기관 간호

부서로 보내고 있다. 총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배지는 한 가지를 연중 달게 되며, 포스터는 실천약속 시리즈에 따라 4회 정도 제작될 예정이다.

첫 번째 포스터에는 간호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비인권적 행위를 절제해 금지하며, 경직된 간호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실천약속 '간호사, 함께 가요'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기 △긍정-칭찬-존중하는 말하기 △내가 먼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에게 관심을 "괜찮나?" △히루 1가지 감사한 일 찾기를 실천한다는 약속이다.

배지 달기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각 의료기관에서 배지를 단 간호사들의 모습을 활용해 보내

주면 간호사신문 및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협회가 그동안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온 결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균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면서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펼쳐나가고,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중 계속되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하고, 협회 의사결정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 대표와 간호협회 임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 만들기 1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간호사를 동등한 동료로서 상호존중하고, 언어적·물리적 폭행 등 비인권적 행위를 절제해 금지하며 경직된 간호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한다. △신구간호사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고육담당간호사의 처우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

관 내 간호교육 시스템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자 안전과 신구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업무적 교육기간 부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간호사에게 부여된 터 지역의 업무 등 불법적 행위를 거부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일에만 전념한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적 포괄임금계약과 수당 없는 이간·휴일·연장 근로를 전면 거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신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위를 절제해 균질하고 모성보호 관련 법적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투쟁한다. △간호사에게만 업무 부담을 기증시키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간호사, 간호사 균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40만 간호사 및 예비간호사인 9만여 간호대학생과 함께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3월 26일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간호사들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즉시 행동해 나가겠다는 결의이다. 실천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캐치프레이즈가 새겨진 배지를 유니폼에 달고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행복한 간호사, 국민건강권의 첫걸음입니다'를 주제로 한 홍보 포스터가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됩니다. 첫 번째 포스터에는 간호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비인권적 행위를 절제해 금지하며, 경직된 간호조직체계와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실천약속입니다.

캠페인은 국제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 시작해 연중 계속되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3월 20일 발표한 '간호사 균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캠페인 배지 및 포스터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부서로 배송해드립니다.

배지 달기 '인증샷' 참여 안내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를 단 간호사들의 모습을 활용해 보내주시면 '간호사신문' 및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해드립니다.

■ 촬영인원 : 5~10명 정도

■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촬영하고, 파일 크기를 줄이자 맡고 원본 그대로 보내주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사진은 안됩니다.

■ 보낼 곳 : happyrn@koreanurse.or.kr / 병원명, 신청자 및 연락처 기재

■ 문 의 : 간호사신문 02)2260-2570

PLAN YOUR STORY™

Prudential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완성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간호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늘 자신보다 다른 이를 먼저 보살피는 간호사이지만,
그 삶 또한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는
간호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준비,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가 함께 하겠습니다.